

나주시, 전기차 이어 전남 첫 수소전기차도 보급

전남 전기차 보급 1위 '에너지 수도' 올 10대...3550만원까지 보조금 지원 전기승용차 348대·전기화물차도 보급

전남지역 전기자동차 보유 1위인 나주시가 전남 최초로 수소전기차를 민간에 보급한다. 이를 통해 '에너지수도' 명성을 돈독히한다는 계획이다.

12일 나주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전기 승용차와 화물차에 이어 '수소전기차'를 전남 최초로 보급해 미세먼지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개선에 박차를 가한다.

민간·공공 부문 보급 물량은 전기승용차 348대, 전기화물차 38대, 수소전기차 10대다. 지난 9일부터 예산소진 때까지 선착순이며, 잠정 마감 예정일은 12월10일이다.

신청 대상은 올해 2월 4일 이후 나주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법인·기업·공공기관이다. 개인은 가구당 1대, 법인·기업은 1곳당 전기차 2대와 수소전기차 1대를 보급한다.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차종은 환경부 인증 전기차충전소(www.ev.or.kr)에 등재된 차종으로 2

? 수소전기차 산소와 수소가 만나 전기에너지를 만들고 배기가스 대신 물을 만들어내는 친환경 자동차다. 크게 보면 전기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기차에 속하지만, 전기충전기를 통해 배터리를 충전하는 일반 전기차와 달리 수소 기체를 저장하는 연료탱크가 있으며, 촉매를 활용한 화학반응을 통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차이점이 있다.

개월 이내 출고가 가능해야 한다. 구매 지원신청서 제출 전에 지정 제조·판매사와 차량 구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전기자동차 지원시스템'(www.ev.or.kr/ps)을 이용하면 편리하다.

다만 2017~2019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자, 주민등록상 보조금 지원대상자가 속한 세대주 및 세대원, 법인·기업 대표자 이중 지원, 2년 이내 다른 지자체 또는 한국환경공단 수소전기차 구매 자금 지원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구매 보조금은 전기승용차의 경우 차종에 따라 880만~1780만원, 전기화물차 908만~2760만원, 수소전기차 3550만원이다.

나주시는 시민이 체감하는 에너지복지 실현을



강인규 나주시장이 업무용 전기승용차 내부를 살펴보고 있다.

(나주시 제공)

위해 전체 보급물량의 20%인 전기승용차 40대, 전기화물차 7대, 수소전기차 1대를 취약계층과 다자녀,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경유차 폐차 지원 대상자 등에 우선 보급할 예정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전기자동차에 이은 수소전

기차 보급에 힘써 전기차 선도도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며 "전기차의 편리한 이용을 위한 충전인프라 구축에도 최선을 다해 시민이 체감하는 에너지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on@kwangju.co.kr

3명만 있어도 찾아갑니다 담양군 인문학 문해교실 확대

담양군은 인문학교육특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찾아가는 인문학 문해교실' 사업을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인문학 문해교실은 5명 이상 학습자와 교육장소가 확보된 마을에서 추진했으나, 소규모 학습자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수요자 맞춤형 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기준을 3명 이상으로 낮췄다. 또 한글교실뿐만 아니라 음악, 미술, 금융, 교통 등을 체험하며 학습자들에게 실생활에 꼭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추가됐다.

사업을 희망하는 마을은 오는 25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문해교실은 희망 마을의 학습 여건 등을 확인한 후 4월 이후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담양군 관계자는 "교육에 참여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대상과 프로그램을 확대했다"며 "군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인만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담양군 문해교실은 32개소 283명이 참가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지난 5일부터 휴강 중이다. /담양=노영찬 기자 nyc@kwangju.co.kr

화순군 귀농귀촌심의위원회

주택구입 등 3개 사업 심의

상반기 지원 대상자 11명 선정

화순군은 최근 귀농귀촌심의위원회를 열어 올해 귀농귀촌 지원 사업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귀농귀촌심의위원회는 귀농 농업창업과 주택구입 지원 사업, 귀농인 영농정착지원,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을 심의하고 지원 대상자 11명을 확정했다. 또 올해 귀농귀촌 사업 계획을 심의, 확정했다.

귀농 농업창업과 주택구입 지원 사업은 귀농인을 대상으로 농지 구입·하우스 시설·과원 조성 등 영농기반 확충과 농식품 제조 가공 시설비를 용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연리 2%,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지원된다.

농업창업자금 3억 원까지, 주택구입과 신축자금은 7500만 원까지 용자받을 수 있다. 상·하반기에 신청을 받고 있으며, 하반기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다.

심의위는 귀촌인 유치와 지원에 관한 주요 계획, 귀농귀촌 지원 대상자 선정 등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객관적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공개적으로 심의했다.

화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귀농·귀촌인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실효성 있는 귀농·귀촌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올해 지원 사업 중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귀농·귀촌인 동호회 운영 지원 등 사업은 대상자를 모집 중이니 많이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

나주시 외국인 근로자 맞춤형 배 재배기술 교재 보급

배 주산지인 나주시가 농번기 일손 부족 해결 등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맞춤형 '배 재배기술 교재(사진)'를 제작했다.

나주시는 지역 특산품인 고품질 나주배 생산을 위해 전국 최초로 외국인 근로자 맞춤형 배 재배기술 교재·동영상 제작·보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교재는 고령화에 따른 농촌지역 일손 부족으로 최근 배 과수 농작업 현장에 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작업 숙련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총 47페이지 분량의 교재는 외국인들의 배 농사 기술 이해도를 높이고 농장주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한국·베트남·태국 등 3개 국어로 제작됐다.

고품질 배 생산과 직결된 배 열매숙기, 배 봉지 씌우기, 인공수분 요령, 배 농작업 기본 안전지침 등을 사진과 함께 수록했다.

나주시는 교재에 이어 생육 상황에 맞게 제작한



배 재배기술 동영상도 내년부터 보급할 계획이다.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맞춤형 배 재배기술 교재는 농협중앙회 나주시지부와 나주배원협, 지역 농협, 나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받아볼 수 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나주시, 한옥보조금 전지역으로 확대...2억까지 지원

나주시가 한옥 보조금 지원 대상 지역을 기존 읍성권 전통한옥지구 및 한옥마을에서 나주 전 지역으로 확대했다고 12일 밝혔다.

나주시는 읍성권 한옥지구와 한옥마을로 제한했던 '한옥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나주 전 지역으로 확대했다고 12일 밝혔다.

한옥을 새로 지을 경우 보조금을 최대 2억원(시비 4500만원, 용자금 1억5500만원)을 지원한다. 나주시는 부동산 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한옥 보

조금 지원 기간을 오는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했다. 또 사용승인일부터 5년 이내 전매행위가 금지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한옥 보조금 지원 범위를 확대를 통해 전년과도 숨결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전통 한옥마을 조성이 더욱 탄력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역사문화자원과 한옥의 조화를 통해 침체된 원도심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on@

고의사고! 허위입원! 허위청구! 과잉진료! 확대수리

한 사람의 보험범죄 전국민의 경제부담

2016년 9월 30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날로 지능화되는 보험사기에 늘어나는 국민손실, 보험사기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보험사기, 반드시 적발됩니다.

손해보험협회

MERITZ 메리츠화재 | 한화손해보험 | 롯데손해보험 | MG손해보험 | Heungkuk Fire & Marine Insurance | 삼성화재 | 현대해상 | KB손해보험 | 동부화재 | KOREAN | SGI서울보증 | AXA | AIG | TheK손해보험 | NH농협손해보험



담양군이 오는 6월까지 담양·창평·대전시장 등 전통시장 3곳의 사용료를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 창평시장 전경. (담양군 제공)

담양군 전통시장 3곳 사용료 전액 감면

6월까지...코로나 피해 상권 돕기

담양군은 오는 6월까지 전통시장 3곳의 시장 사용료를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월별 부과하던 담양시장은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분을 부과하지 않고,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부과하던 창평시장과 대전시장은 하반기에 2개월분만 부과한다.

소비 위축으로 어려워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담양사랑상품권 특별 할인율(6%)을 10%로 높여 7월15일까지 판매할 계획이다.

전통시장 사용료를 감면해 시장상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상품권 할인율을 확대해 내수경기 활성화를 유도하자는 차원이다.

담양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지역상인들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담양=노영찬 기자 nyc@